

# “文정부, 귀순자 인권 짓밟아”...시민단체, 정의용 등 11명 고발

### 국정원·통일부 관계자 등에 직권남용죄 혐의 “강제송환 결정·집행자 모두 인권침해 가해”

시민단체가 12일 ‘탈북어민 복송 사건’과 관련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죄)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탈북 어민 복송 사건은) 문재인 정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하나로 인권을 강조하며 북한 귀순자의 인권을 짓밟은 내로남불의 또 하나의 사례”라며, “탈북선원의 강제 송환결정자인 정 전 국가안보실 외 7명과 성명 불상의 집행 관계자들을 인권침해 가해자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NKDB가 지목한 고발 대상은 정 전 실장 외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1·2차장, 국가정보원장 및 1차장, 통일부 장·차관, 공동경비구역

(JSA) 경비 대대장, 성명 불상의 경찰·통일부·국정원 직원 등 총 11명이다.

NKDB가 고발장에 쓴 이들의 혐의는 직권남용죄, 직무유기죄, 불법체포감금죄, 범인도피죄, 증거인멸죄 등이다.

탈북어민 복송 사건은 지난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우리 정부로부터 거부당하고 북한으로 강제 추방된 사건이다.

이 사건은 당시 수일 만에 정부의 합동조사가 종료됐지만, 최근 국정원의 고발로 재조명되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에 배당하고 수사 중이다.

윤승현 NKDB 센터장은 “탈북선원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조사 없이 단 5일 만에 이들의 의사에 반해 위법

한 강제송환을 결정한 송환결정자뿐만 아니라, 위법한 강제송환 결정 집행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자, 현장에서 이를 직접 집행하거나 협조한 자 모두가 인권침해 가해자”라고 했다.

이어 “당시 문재인 정부는 귀순한 선원들이 북한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중죄를 지은 범죄인이라는 것을 주된 복송 이유로 밝혔지만, 이들도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우리 국민”이라며 “우리 법의 실효적 지배에 들어와 귀순 의사를 밝힌 이들을 복송한 것은 대한민국 사법권을 포기한 주권침해 및 인권침해 사례”라고 말했다.

그는 또 “16명을 살해한 대형 사건을 단 5일 만에 급하게 조사를 마무리했다는 것도 의심스러우며 무엇보다 이런 사유로 강제 복송한 선례가 없어 배경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추측과 의혹이 나돌고 있다”며, “당시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하기 위해 귀순자의 인권을 포기했다는 것이 유력한 실”이라고 했다.

NKDB는 15일 이 사건 관련 재발 방지 대책



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인권위원회·국제위원회와 함께 공동으로 토론회를 주최한다. NKDB는 지난해 10월 법률 전문

가들이 북한인권 피해자 구제와 명예 회복을 위한 법률 지원을 위해 설립한 시민인권단체다. 최이슬기자

## 콘서트의 계절 ‘티켓 사기’ 주의보

### 거리두기 해제로 콘서트·스포츠 경기 속속 재개

대구에 사는 A(42)씨는 최근 시어머니의 생신을 맞아 가수 임영웅씨의 콘서트 티켓을 사려다 돈만 잃었다. 그는 “처음엔 연락이 잘 됐는데 지금은 휴대전화 정지 상태”라며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 이력을 믿고 거래했는데 결국은 사기였다”고 말했다. A씨는 추가 피해를 막고자 인터넷 사기피해 정보공유 사이트인 더치트에 글을 올려 피해 사례를 공유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인기 가수의 콘서트와 스포츠 경기 행사가 속속 재개하는 가운데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한 티켓 사기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임영웅 콘서트 티켓 사기를 당한 또 다른 피해자 B(37)씨는 “돈도 못이지만 콘서트 티켓을 못 구해서 더 속상하다”며 “엄마랑 휴가를 같이 못가게 돼서 더 보내드리고 싶었는데 꼭 잡혔으면 한다”고 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유명 콘서트 및 스포츠 경기 티켓은 예매 즉시 매진 행렬을 기록하고 있다. 오는 13일에는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홋스퍼의 내한 경기가 열리고 15~17일에는 싸이 흥행쇼가 잠실 올림픽주경기장에서 열린다. 내달 12~14일에는 가수 임영웅씨의 콘서트 가 예정돼 있다.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첫 여름 휴가철인 만큼 억눌렸던 수요가 몰리면서 대부분 티켓은 예매 시작과 동시에 매진됐다. 현재 각종 중고거

래 사이트에서 적게는 몇 만원부터 많게는 수십만원까지 웃돈을 얹어 거래되고 있다.

온라인에서 티켓을 사고 파는 이른바 ‘암표 거래’ 자체가 처벌 대상은 아니다. 현재 암표거래에 대한 규제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현장에서의 암표 거래에 한해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수준이고, 온라인 암표 거래는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다.

문제는 대부분 거래가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비대면으로 이뤄지다 보니 사기 범죄 위험성이 높다는 점이다.

팀 K리그와 토트넘 선수단의 경기 티켓을 구하려다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C씨는 “판매가의 20~30%에 대해 선입금을 요구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입금 받겠다는 말에 속았다”며 “토트넘 경기부터 싸이 흥행쇼까지 한 사람이 저지른 티켓 사기만 20건이 넘더라. 전화번호를 여러개 써서 더치트에 조회해도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티켓 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 간 거래는 되도록 피하되 일단 피해가 발생하면 최대한 많은 증거를 수집해 경찰에 신고하라고 조언한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이 제공하는 사기의심전화번호 및 계좌번호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최근 3개월 간 3회 이상 신고가 접수된 번호인지 확인할 수 있다. 김재현기자

## ‘악취 피해’ 광주 모 유통업체 내 부패 수산물 강제 폐기



폐업 이후 방치된 어패류로 썩는 악취를 풍겼던 광주 도심 한복판의 농수산물 유통업체 내 폐기물을 관할 자치구가 직접 수거·처리했다.

광주 북구는 12일 오전 9시 40분부터 악취를 풍겨 주민 민원이 잇따른 북구 임동 한 유통업체 저온저장 창고 4기에 방치된 수산물 폐기물을 수거·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환경미화원 등이

### 잠적 업주-광주 북구 면담 거쳐 ‘강제 처분’ 동의

투입되며 오후에는 관할 소방서가 살수차를 지원해 물 청소를 한다. 이후 보건소는 해당 업체 주변에 소독 방역 작업을 벌인다.

앞서 올해 3월 부도가 난 해당 유통업체는 업주가 연락을 끊고 잠적, 창고에 보관 중이던 수산물 부패로 인한 악취가 진동했다.

여름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전기요금 미납에 따른 전력공급까지 끊기면서 악취 피해가 확산, 주민 민원이 빗발쳤지만 업주가 잠적했다.

더욱이 토지 소유자가 건물 임차인에게 ‘강제 퇴거 요구’ 명도 소송을 진행하면서 관할 지자체인 북구가 해당 수산물을 강제 수거·처리할 수 없었다. 그러나 방치된 수산물

소유자인 업주와 뒤늦게 연락이 닿아 북구는 지난 11일 현장 면담을 진행했다. 면담에서 업주는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폐기물을 자진 처리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북구는 업주로부터 ‘폐기 대상 수산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강제 처리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구정에 묻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받았다. 북구의 강제 폐기 행정 처분에 동의한다는 뜻이다.

북구 관계자는 “1t 화물차 2대 분량 이상의 폐기물을 수거할 것으로 보인다. 부패 수산물과 스티로폼 포장재 등은 음식물쓰레기 또는 방치 폐기물로 각각 분류해 처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 학교가 심상찮다...서울학생 확진자 한주만에 2.6배 증가

### 5월 셋째 주 이후 7주 만에 2000여명 넘어

지난 한 주 동안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 학생이 1주 만에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4일~10일 동안 서울 유·초·중·고 학생 2587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전주 988명보다 1599명(162%) 늘어 2.6배 급증했다. 주간 학생 확진자 수가 2000명을 넘는 것은 지난 5월16일~5월24일 2447명이 집계된 이후 7주 만이다.

최근 4주간 주간 확진 규모는 722명, 829명, 988명으로 차츰 증가하다 지난주 2587명으로

치솟아 4주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학생 1만명당 발생률도 28.6명으로 직전 주 11.0명보다 2.6배 올랐다. 최근 4주간 발생률은 지난달 둘째 주 8.0명부터 셋째 주 9.2명, 넷째 주 11.0명에 이어 이달 첫째 주 28.6명을 기록했다.

이슬비기자

#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